

2017년 3월 31일, 조천읍 신촌리 동동노인정, 강수경 조사.

박원림(남, 1935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• 줄거리: 신촌리에서 논흘 제사집에 갔다가 밤중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허름뱅디쯤 왔을 때 검은 것이 길을 막아섰다. 길을 찾으려고 걷다 보니 눈이 쓰인 풀밭 위를 걷고 있었다. 계속 길을 찾으려고 해도 점점 더 옆쪽으로 갔다. 그랬더니 앞이 시커먼 구름 같이 깜깜해졌다. 그제서야 도깨비에게 홀린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듣던 대로 한참을 앉아서 걸어온 길을 생각하였다.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깜깜하게 막아섰던 게 사라졌다.

[제보자] 기신대 구신이엔 허영.

[조사자] 기신대.

[제보자] 기신대. 옛날에 그 막 사름 미치광이질 허영 지금 정신엇이 정신병 걸려그네 미치광이질 허문 막 굿을 허는다. 그 점쟁이신디 가믄 '어느 구신 들렸다. 구신 들렸다.' 허면은 그걸 이제 기신대 귀신 들렸다곤 허영 놀래난 도깨비, 말허는 귀신이엔 허영. 도깨비. 헛게비엔도 허곡 도깨비엔도 허곡.

게난 그걸 기신대 구신이엔 헌 거는 이제 밤중에 가당 보믄 질 막 너른 질이라도 탁 가달 탁 벌려 막아산다는 거라. 가로 막아상. 하늘도 그냥 땅도 못 보게시리 탁 가로 막아그네 눈앞이 깜깜하다 이거라. 게믄 이제 다리를 짹 벌견에 그 알로 넘어가라 허문 넘어가렌 허는 식으로 경 헨다 이거라.

게난 그 알로. 우리 아바지네 어디 뎅기다그네 밤중에 뎅기당 그 기신대 구신 만나믄, 하늘과 땅이 꽉 막아그네 그냥 다리만 벌겨 잇이나네. 그 강알로 넘어갓단 와장창 그냥 무너지는 식으로 그냥 쟁주앙 죽이는 식으로 그것에 놀래나믄 그냥 별 굿해도 안 좋앙 죽나 이거라. 어디 밤이 뎅기단에 그런 거 만나민 그냥. 그냥 ?만이 앗아그네 눈 딱 금곡 귀 막아그네 그냥 한참 헹 정신 출려그네 경 헵이믄 엊어진다 이거라.

겐 난 그 말만 들었는디. 난 논흘게 섣달 초닷세 날 그 우리 친족 하르바님 제소보레, 두환이 하르바님 제솟날인디. 아간. 밤중에 제소 섣달 11월 초닷세 날이난 눈도 질레 헤옇게 묻고 막 춥고 구름이 그냥 꽉 차주게. 아 제소 반에 열두시 넘어 야 제소 파제허니까 제소반, 아 집더레 오젠 허니까 걸엉 뎅길 때니깐이. 아 영. 아. 천장수 아방 천진숙이엔 헌 어른도 곧이 앗앙 영 놀단에.

"가지 말앙 이디 늦당 가게. 가당 질 일르메 질 일르메."

"아, 뭐뭐, 눈 곱아도 뎅기는, 메날 뎅기는 질이니까. 무슨 못 갑니깽."

헨 난 귀신이 무섭지 안 허여. 산 사름이 강도나 도둑놈이나 만나그네 질례서 밤 중에서 만나카부덴 겁나주. 원 어릴 때부터 귀신이엔 헌 건 무신 귀신이엔 (웃음).

경 행 온 디 한참 눈 뜨나마나 헨 어둠질 삼아 질은 들도 엊고게. 구름 딱 껴 노니깐이. 처음은 눈 묻으니깐 질이 훤히게 보연게. 한참 걸어동 보니깐이 앞이 거멓게 꽉 그냥 막아산. 그냥 막아산 그 허름뱅디 오니깐이. 아 이거 아바지안티 그런 말은 들어난다. 아 그 그런 생각은 못 헤네.

[청중] 혼자만 옵디강?

[제보자] 혼자만 앗주게. 오단 보니깐이 막 앞이 질만 촛젠 눈 묻은 질만 촛젠 영 허명 정신 출령 영 오는디. 그때 술도 안 먹고 그냥 술 안 먹은 때나네. 흐룻뱅디 완에 보니깐 그 신발 신은 발자국 소리가 테역밧딜로 걸어쳤어. 테역밧딜로. 눈 우이로 걷지 안 허연 테역밧디. 테역밧디 눈 묻엇주만은 흐룻뱅디에 뱅디에 그냥 옆 더레 들어사젠게 질 ?못 촛젠 허니깐이 점점점점 이제 그 뜯 더레 간 거라. 가단 보니깐이 앞이 탁 막아산 시커멓게 그냥 구름같이 딱 헨. 게난 아바지 골은 말대로 눈 딱 굳은 영 헨 앗안 훈참 잇이니깐이. 나살 때 치홍이네 올레에서 나상 몇 발자국 정도 걸언 틀림없이 어디 와젖일 거다헨. 정신 출령 영 보니깐이. 영 텐 보난 그게 어디사 가 불엇인디 훤히 불언. (웃음). 훤히 불언. 경 헨 그 다음부턴 아, 이게 기신대 구신이구나 경 헨. (웃음).

[조사자] 기신대 귀신마씨?

[제보자] 기신세는 기신세 굿이엔 헌 거. 집 초가집덜 새로 그 집 일지 안 해게. 그것이 그런 미치광이질 사름이 정신엇인 병 걸리믄 그 귀신 답달허젠폰 이젠폰 그 그걸 이제 굿 헤여그네. 기신세는 이제 그 기신세 요만씩 허영 훠 빼는, 훠 뚫으는 거같이 요만씩 뚫엉 요만히 뚫엉 그걸 놓고 그냥 막 답달허는 거라. 심방덜이. 그냥 그 귀신 부떳다고 그 이제 환자 영 앗하고 그 귀신앞이. 기신대 앞에 놔그네 그냥 그걸로 막 두드리멍 허는디. 그걸 행 끝나믄 장독 헤당으네 액막이 헙니다만은. 장독 헤다그네 그 그냥 산 차. 산 차 상 출려그네 질 가운데 어디 강 내불어. 질 가운데. 사름 많이 뎅기는 질 가운데. 그냥 이 부락 가운데도 놓주만은.

[청중] 어디 니커리나 시커리.

[제보자] 예. 부락뻘이 나가그네 그냥 놓 내불은 그거 가다가네 본 사름은 그것에 그냥 그 것에 의탁헤그네 그냥 정신도라짱 걸리는 거라. 게난 그 갖다논 사름은 그레의 탁혜부니까 액막아부니까 그 장독은 살아있는 거 영 행 내불은 그것이 짖으믄 막 돌아댕겨. 돌아댕기믄 또 그 장독 심어당 먹은 사름 또 그 병 걸린다 말여. 경 행 나 그런 것도 봐나고.

[조사자] 예. 좋수다. 말씀 잘 하셨던게마씨.

- 핵심어 : 기신대, 도깨비, 굿, 장독, 액막이, 미치광이질, 심방, 신촌리, 귀신